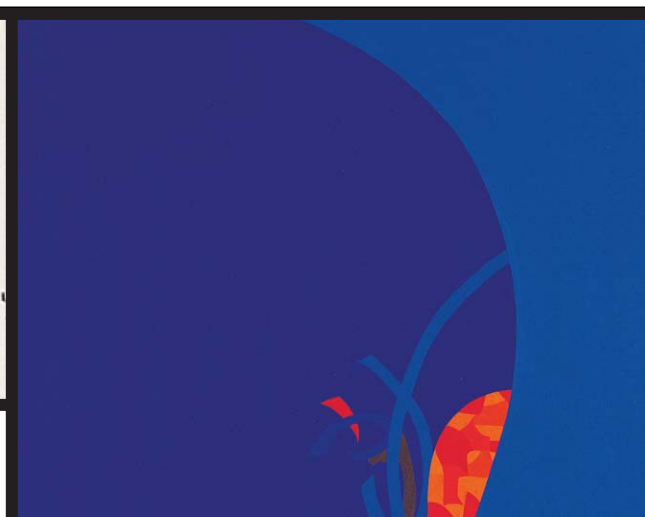


신작 '禪으로부터'. 162×130cm, 캔버스, 석채 혼합재료.



법관 스님의 선화.



'석난'. 91×65.5cm.

법관 스님 '禪으로부터'展

4월 15~21일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최

"사람만상이 다 그림인데 무엇을 또 그림 것이 있겠는가. 고인(古人)의 먹빛은 검되 맑고 희어 보이는데 내 그림은 번뇌만 흩어진듯 하네. 언제나 군더더기 다 떨어져 한 붓을 들어만 사람의 마음을 적실 수 있으려나."

불교계에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근 화단에서 독창적인 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법관 스님(강릉 능가사 주지)의 시다. '능히 모든 세상 일을 다 그려내는(能畫諸世間)' 본래면목을 찾는 스님의 네 번째 전시회 '선(禪)으로부터'展이 4월 15~21일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1층에서 열린다.

무문관을 비롯한 토굴 참선을 해 온 수좌 출신의 법관 스님은 독학으로 선화(禪畵)를 그려왔지만, 그림에 대한 안목과 깊

이는 화단의 대가들도 놀랄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안거 철에 선인들의 고서화(古書畵)와 현대 작품들을 다양하게 섭렵한데다 부단한 수행의 정신적 결과물들을 화면에 쏟아내다 보니 전시회를 열 때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강릉 능가사 내에 아담하게 자리한 고암갤러리 다실에서 만난 스님은 무뚝뚝한 표정 가운데서도 자비심이 넘쳐나는 전형적인 수좌의 모습이었다.

"좌선할 땐 열심히 좌선하고, 예불하거나 일할 땐 정성을 다하고, 그림 그릴 때는 그림에 몰입할 뿐입니다."

스님은 참선 하는 틈틈이 그림을 그릴 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지만, 어떤 목적을 갖고 그림을 그리지는 않는다.

그림에도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붓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집없는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밝힌 스님은 그간 수묵(水墨)에 의한 선화(禪畵) 등을 그려왔으나, 최근에

는 원색이 어우러지는 조형작업으로 선회했다. 2004년 '빈손으로 왔다 가네' 선화전, 2006년 '심상 심류'전, 2007년 '비산 비수'전을 통해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는 무주(無住)의 화풍을 이어오고 있다. 선화에서 채색 산수화로, 이어 구성적 경향의 작업으로 점차 이행해간 흔적이 뚜렷하다.

특히 이번 '禪으로부터' 전에서는 난색과 한색의 보색대비에 의한 구성적 경향

의 추상화 40여 점이 정화된 붉은색의 안운한 화엄세계를 연출한다.

능가사 갤러리에서 스님의 그림을 미리 감상한 윤진섭 미술평론가(호남대 교수)는 "단색조의 화면은 순도높은 색가(色價)로 이루어져 맑고 청정해 보인다. 붉은색이되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지 않는 것은 색의 순도에서 오는 것 같다. 사물의 외형적 모습에서 비롯되는 이미지를 제거하고 본질에 육박해 들어가려

는 의지는 단순한 형태를 놓고 있다"고 말했다. <미술세계> 김성철 주장은 스님의 이번 작품에 대해 "반복되는 듯 보이지만 중첩되지 않는 각각의 다양한 색과 면들로 구성된 화면은 즉발적이고 순간적인 감흥에 의해 표출되어 나오는 형상들이란 점에서 불교의 '즉심(卽心)'과도 같다"고 풀이했다.

오랫동안 스님의 구도작업을 지켜본 이병인 부산대 교수는 "정형화된 구도 없이 조화로운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순간순간의 명료한 의식과 행위의 단순한 반복만으로 이뤄진 글과 그림은 맑고 푸른 동해바다의 시원함과 대관령 금강송 같은 청정함이 가득 서려있는 선화"라고 평했다. (033)643-4537

김성우 기자 buddhania5@hanmail.net

캄보디아 궁중불교무용 '압사라' 국내 공연

도우 초청...4월 15일부터 석달간 희망 사찰·단체서

양코르와트 사원의 벽을 수놓은 1500여 개의 '천상의 무희' 조각상, 신과 왕에게만 바쳐졌다는 캄보디아 궁중불교무용인 '압사라(Apsara)', 8번째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압사라 춤을 국내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 도우(회장 남광일) 초청으로 방한하는 캄보디아 왕립무용단은 4월 15일~7월 15일 희망 사찰 또는 단체에서 '천년의 꿈, 압사라의 부활'을 공연할 계획이다.

1000여 년 동안 캄보디아 왕궁의 궁중무용

중에서도 가장 우아한 몸짓과 정교한 복장으로 추는 압사라 무용은 크메르왕국의 역사를 간직한 전통무용의 정수이다. 의미가 다른 2000여 춤 동작을 배우기 위해 무희들은 다섯 살에 왕궁에 들어가 20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축생계, 인간계, 신의 세계를 상징하는 무용을 수련할 정도로 어려운 춤이다.

남광일 회장은 "이번 초청 공연은 양코르와트와 압사라 무용과 같은 문화유산을 잃을 뻔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예술로 승화시킨 캄보디아의 예를 통해, 우리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011)1714-8851

김성우 기자



사또우 다카시가 바라 본 한국 문화재

3월25일~4월5일 김영섭사진화랑서 사진전

한국 문화재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던 일본인 사진가 사또우 다카시(佐藤隆司)의 사진전이 3월 25일~4월 8일 인사동 김영섭사진화랑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 작품은 작가가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의 곳곳을 발로 누비며 촬영한 문화재 사진 약 1200점 중에서 선택된 것이다.

작가의 한국 문화재 순례는 1968년 여행사를 운영하는 친구의 권유로 따라 나선 관광 여행에서 비롯됐다. 첫 여행지인 경주에서 석굴암의 불상을 마주할 때 받은 깊은 감명은 하나의 종격이었다. 이후 작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비롯한 수많은 서적

과 자료를 섭렵하면서 한국 문화재를 새롭게 인식하는 자신만의 안목을 갖춰갔다.

작가는 1975년, 지난 8년간 12차례 한국을 방문해 한국 문화재와 그 주변 풍경을 촬영한 사진들을 모아 5월 8~20일 미도과 백화점 4층 장미홀에서 '한국의 불상' 사진전을 갖기도 했다. 게다가 <海東의 古寺 探想>이라는 저서도 펴냈다.

최근 작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국 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사진 자료를 이태한 교수(여주대학 사진과)에게 기증해 변함없는 문화재 사랑을 보여줬다. (02)733-6331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 구독신청·기사제보 | 02-2004-8200



세계인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캄보디아 왕실(정부지원) 압사라(Apsara)무용단 초청공연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도우의 공연 연혁

- 2006년 쓰나미 피해 돕기 스리랑카 국립무용단 공연
- 2007년 부처님의 성지 돕기 위한 네팔국립무용단 공연
- 2008년 중국지진피해돕기 중국불교연합무용단 공연



압사라 댄스 민속무용 12가지의 무용(공연 총 소요시간_90분)

기간_2009년 4월 15일~7월 15일(90일간)
초청_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도우 (www.108.or.kr)

후원_캄보디아(정부/대사관/문화원) 불교문화상조 '환경·생명·문화'공동체/도우 휴림생활건강(KT&G)

담당자_011-581-8851

• 이 공연을 초청 하고자 하는 사찰, 불교연합회, 단체기금 공연이 가능합니다.